

보성군, 30년 만에 인구 순전입 전환…유입·출생 동시 증가

3년 연속 합계출산율 상승·인구감소율 둔화 등 인구 지표 개선
인구정책 강화·정주 환경 개선, 청년·출산 정책 확대 등 성과

보성군이 30년 만의 '인구 순전입' 전환을 달성하며 주요 인구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군은 5일 인구정책 강화와 정주 환경 개선, 청년·출산 정책 확대를 통해 인구 유입과 출생 증가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실현했다고 밝혔다.

2023년~127명, 2024년~88명으로 인구 감소 폭이 줄어든 데 이어, 2025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90여 명 많은 '순전입'으로 전환됐다. 이는 1995년 이후 30년 만의 변화다.

2023년 인구정책과 신설과 2025년 청년활력팀 설치 등 조직강화가 지속되면서 ▲청년 정책 확대 ▲주거·생활 인프라 개선 ▲출산·양육 지원 강화 등 다층적 인구정책이 실제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 성과로 해석된다.

출생아 수는 2022년 81명이었으나 2023년 103명, 2024년 110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2025년에도 같은 기간 대비 약 10% 증가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9%에서 2023년 1.09%, 2024년 1.20%로 높아져 2024년 기준 전국 17위, 전남 8위를 기록했다.

인구감소율도 2023년 2%대에서 2024년 1.7%로 개선됐으며, 2025년에는 1% 초반대까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장려금·양육지원 확대 ▲출생기본수당 신설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신생아 출산 축하 물품 지급 등 출산·양육 지원책이 결합한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보성군은 청년 정책을 강조하며 청년정책을 확대해 왔다.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보

성청년 창업 프로젝트 ▲기업승계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활동 참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넓히며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방향을 '사람 중심 투자형 전략'으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SW) 기반 인구 활성화 사업을 강화해 왔다.

주요 'SW사업'은 ▲인재 발굴 플랫폼 '보성 두드림 스테이' ▲스타기업 육성 엔진 '보성새싹 키움 터' ▲비즈 활용 주거 플랫폼 '보성 마을 집사' 등 관광·문화·청년 활동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체류 인구)를 유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군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 획득하며 타당성과 추진 역량을 인정받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30년 만의 사회적 인구 증가는 보성이 사회적 인구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군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성에 머물고 돌아오는 환경을 만드는데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군이 30년 만의 '인구 순전입' 전환을 달성했다.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 어린이날 행사에서 지역 아동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모습.

〈보성군 제공〉

순천시 '댕댕순천'으로 반려여행 특화도시 도약

반려관광 프로그램 브랜드 통합

정원·생태 잇는 여행 프로그램 확산

순천시가 2025년 반려여행·반려친화 관광프로그램을 '댕댕순천'으로 통합하여 브랜드 기반의 반려여행 특화도시로 도약했다.

순천시 뿐만 아니라 근교 반려인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던 것은 올 한해 반려여행 프로그램을 '댕댕순천' 브랜드 아래 체계적으로 통합한 것이 큰 이유이다.

시는 지난 10월 오천그린광장에서 개최된 '댕댕순천 반려동물 행복주간' 동안 ▲2025 댕댕순천 ▲애니멀필립스터 ▲반려동물 문화한마당 등 반려동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들로 반려인들과 관광객의 호응을 크게 얻었다.

지난 11월 신대지구 생태회랑에서 열린 '댕댕순천 힐링워크'는 ▲6.4km 반려견 동반산책 ▲레크리에이션 ▲DIY 만들기 ▲반려견 건강상담 등을 결합해 '댕댕순천' 브랜드를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며 순천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12월 순천드라마촬영장에서 예정된 '댕댕순천, 드라마 속 겨울이야기',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 운영', '펫 교복체험'을 복합·연계해 겨울에도 반려인과 관광객들의 밭길을 사로잡을 예정



순천시가 반려여행·반려친화 관광프로그램을 '댕댕순천'으로 통합했다. 지난 11월에 열린 '댕댕순천, 힐링워크'.

이다.

이처럼 정원·도심·생태·힐링장을 잇는 다양한 반려동물 등반 프로그램이 공간·계절 특성에 맞춰 배치되면서, 반려인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 순천시 관광체류 시간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5년은 '댕댕순천' 브랜드 흥보와 함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순천을 대한민국 대표 반려여행 특화도시로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반려여행 경험을 순천시 만의

방법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6년에도 '댕댕순천' 브랜드를 중심으로 정원·도심·하천·생태·힐링장을 잇는 여행 부트를 고도화하고 계절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체계로 확장할 계획이다. '댕댕순천' 브랜드 흥보와 함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순천을 대한민국 대표 반려여행 특화도시로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제23기 곡성군 노인대학 수료식

입학생 41명 3월부터 소양교육·현장체험·문화탐방 등 프로그램 이수



고흥군, 전남도 공공보건의료·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동시 선정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고흥군이 최근 전남도가 개최한 '2025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성과대회'와 '2025년 전라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대회는 전남도와 시·군, 유관기관 간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고흥군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주민 건강관리 수준을 개선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공공보건의료 발전 성과대회에서는 보건진료소 2개소 신설, 보건지소 진료소 기능전환,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농어촌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진료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는 '고흥 형 천수(天壽)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농어촌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통합보건서 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했다. 아울러, 고령층 노쇠도(K-FRAIL)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마을 건

강지킴이단 운영과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 주도형 건강공동체 기반을 마련한 점도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두 개 부문의 우수기관 선정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든 성과로, 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직원 역량 강화와 주민 참여형 건강마을 모델을 꾸준히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흥형 천수마을을 확대·조성해 주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한 노년, 활기찬 고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여수시립합창단, 헨델 '메시아'로 송년음악회

18일 예술마루 대극장

여수시가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여수시립합창단 2025 송년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연말 시즌의 대표 레퍼토리이자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꼽히는 헨델의 '메시아(Messiah)'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정상급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참여하며, 소프라노 한경성, 메조소프라노 양승미, 테너 김효종, 바리톤 박정민이 각각의 소리로 작품의 서사를 이끌어간다. 또한 품격 있는 사운드로 인정받는 오케스트라 누오베 무지카(Nuove Musiche)가 협연해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들려줄 예정이다.

1741년 작곡된 헨델의 '메시아'는 총 53곡,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려낸 대작이다. 제1부 '예언과 탄생', 제2부 '수난과

죽죄', 제3부 '부활과 영생'의 3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2부의 'allelujah(allelujah)' 합창은 영국 왕 조지 2세가 감격해 벌떡 일어났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서 관객이 기립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서형일 상임지휘자는 "메시아는 종교를 초월해 인간의 고난과 희망, 구원이라는 보편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라며 '여수시립합창단의 정제되고 풍부한 사운드와 최정상급 솔리스트,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낸 감동의 하모니로 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축복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티켓은 전석 5000원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약자, 학생은 20% 할인된다. 예매는 지정 예매처(광무동 예총사무실, 여서동 가을서점, 신기동 청음악기사, 학동 디지털세상)에서 가능하며, 공연 관련 문의는 여수시립합창단 사무실(061-659-5681)로 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dongbuchoebeonjang@chukim@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매돌이 응원단' 모집

광양시가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청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9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제인자업그라운드 광양 일대에서 '매돌이'와 함께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염원 게릴라 응원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시가 청년친화도시 지정 현장설사를 앞두고 청년들이 직접 응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 대표 캐릭터인 '매돌이'가 함께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행사 당일 제인자업그라운드 광양에서 게릴라 응원에 참여한 후 매돌이와 인증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지역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개토식

시굴조사 탄환·뼈 등 다수 발견

구례군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일 구례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유족과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토식은 김순호 구례군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규종 여수·순천 10·19 사건 구례유족회장과 고용종 여수·순천 10·19 사건 지원단장의 추도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 제례 ▲사업 설명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주관한 이번 유해 발굴 사업은 '여순사건법'에 명시된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

이다. 시행사인 '일영문화유산연구원'이 12월 첫째 주에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다수의 탄환과 탄피, 희생자의 팔·뼈, 대퇴골 일부가 발견되어 유족의 해원과 당시 구례군의 피해 양상 규명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추운 날씨와 토양의 수분 등으로 인해 매장된 유골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발굴지 보존과 시굴조사를 서두로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여순사건법 제정 이후 유족들의 피해 신고 사례를 접하며 당시 참상에 대한 조속한 진상 규명과 배·보상 등 유족의 권리 회복을 위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돌아온 희생자의 넋이 오랜 한을 풀고 편안히 영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